

구윤철 부총리, EBRD 총재와 인공지능 허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(LOI) 서명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.18(월) 영국 런던에서 오딜 르노-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총재와 면담을 가졌다.

먼저, 구 부총리는 르노 오딜-바소 EBRD 총재와 EBRD의 인공지능 K-허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(LOI)를 체결하였다. 동 허브는 EBRD의 개도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에 AI를 접목하고,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무소로 한국에 설치될 예정이다.

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AI가 개발도상국에 있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, 글로벌 AI 기본사회*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기구 AI 사무소들을 한국에 집적화하여 AI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“글로벌 AI 허브” 조성 계획을 소개하였다. 뒤이어, 현재 세계은행(WB), 미주개발은행(IDB)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의 협력**을 진행 중이며, 이번 협력의향서 서명으로 시작된 EBRD와의 협력도 환영한다고 밝혔다.

* 인류 보편 문제를 AI기술로 해결함으로써 AI 발전의 혜택을 전세계가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우리나라의 AI 국제협력 정책 방향

** WB '25.12월 개소, IDB '26.4월 MOU, ADB '26.5월 MOU, CABEI는 협의 중

이어서, 금번 면담에서 양측은 EBRD의 에너지 정책, 한국 인력 진출에 대해 논의하였고, 구 부총리는 한국의 회복력(resilient)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AI 전환(AI Transformation: AX) 및 녹색전환(Green Transformation: GX) 전략을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	곽소희 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	추연재 (yjchu@korea.kr)

